

WEBVTT

00:00:38.178 --> 00:00:39.435

안녕하세요?

00:00:39.720 --> 00:00:43.720

자유기고가 겸 여행작가
허주희입니다.

00:00:44.259 --> 00:00:48.445

이 시간에는 여행 계획 짜기인데요.

00:00:49.096 --> 00:00:53.973

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 계획이 아니라
취재를 위한,

00:00:54.077 --> 00:00:58.722

즉 여행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가는
여행 계획 짜기입니다.

00:00:59.086 --> 00:01:02.223

먼저 여행 작가 여러분,
많이 들어보았죠?

00:01:02.754 --> 00:01:07.900

젊은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이
여행 작가라고 합니다.

00:01:08.263 --> 00:01:11.803

하지만 지금 여행 작가들은
굉장히 많고

00:01:12.288 --> 00:01:18.742

그거에 못 미치게 수요는
굉장히 적은 편이어서

00:01:18.888 --> 00:01:22.444

사실 여행 작가로만 살기는
힘든 것이 현실입니다.

00:01:22.734 --> 00:01:28.492

하지만 자유기고가를 하면서
여행까지 같이 많이 쓰게 된다면

00:01:28.581 --> 00:01:31.007

그것도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

00:01:31.651 --> 00:01:36.518

여행도 나만의 전문성과 콘텐츠를
가져야 합니다.

00:01:37.361 --> 00:01:43.099

먼저 취재를 위한 여행 계획은
여행을 떠나기에 앞서

00:01:45.038 --> 00:01:47.002

계획을 먼저 짜야 합니다.

00:01:47.725 --> 00:01:52.621

그러면 일단 취재가 목적이잖아요.

00:01:52.738 --> 00:01:54.523
그렇기 때문에 일의 연장선이에요.

00:01:54.548 --> 00:01:57.479
그냥 똑같이 놀러 가는 여행은
아니죠.

00:01:57.643 --> 00:02:02.496
하지만 이 여행 기사는
평범한 독자들이 있습니다.

00:02:02.746 --> 00:02:08.227
그렇기 때문에 나도 평범한
여행자의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

00:02:08.852 --> 00:02:10.880
여행 작가의 여행입니다.

00:02:10.905 --> 00:02:16.045
그러면 어디를 갈 것인가가
가장 먼저 중요하겠죠.

00:02:16.441 --> 00:02:23.663
그리고 그 여행지, 그 장소에 갔다면
무엇을 보고 관찰하고 취재할 것인가?

00:02:23.855 --> 00:02:35.975
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숙소, 음식점
또 관광, 축제, 특산물, 맛집

00:02:37.602 --> 00:02:40.309
여러 다양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.

00:02:40.574 --> 00:02:44.138
그러면 내가 봄에 여행 기사를
쓰려고 하면

00:02:44.163 --> 00:02:46.777
일단 꽃이 먼저 떠오르겠죠.

00:02:47.232 --> 00:02:49.076
꽃 축제가 열리는 곳.

00:02:49.101 --> 00:02:51.179
사람들 마음은 다 공통적이잖아요.

00:02:51.204 --> 00:02:53.976
봄이면 꽃구경 가고 싶고.

00:02:55.491 --> 00:03:00.049
그러니까 이 계절, 시기에 맞는
그런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.

00:03:00.486 --> 00:03:03.349
그래서 봄에는 축제가
또 가장 많이 열리죠.

00:03:03.374 --> 00:03:05.545
또 그 지역의 이슈.

00:03:06.528 --> 00:03:10.528

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
어디를 갈 것이고

00:03:10.553 --> 00:03:14.487

그곳에서 어떤 테마로
취재를 할 것인지.

00:03:14.771 --> 00:03:17.373

그러면 정보를 먼저 검색해야겠죠.

00:03:18.013 --> 00:03:21.432

그러면 지자체 관광 사이트가
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

00:03:21.695 --> 00:03:26.800

거기 들어가서 살살이 훑어보고
아, 여기를 가면.

00:03:27.119 --> 00:03:29.443

그 루트, 일정을 짜게 됩니다.

00:03:29.468 --> 00:03:33.128

그리고 필요하다면
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

00:03:33.153 --> 00:03:35.112

전화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.

00:03:35.454 --> 00:03:39.157

저희 어디 매체에서 취재를 가는데
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면

00:03:39.182 --> 00:03:43.535

그분들도 기꺼이 협조를
해 줄 것입니다.

00:03:44.615 --> 00:03:49.492

그리고 그 지역에 갔는데
그 지역만을 위한 특징,

00:03:49.928 --> 00:03:52.852

아이템을 메인 테마로 다루는 것도
중요합니다.

00:03:53.201 --> 00:03:56.508

아까 봄이면 가장 먼저 벚꽃이 피죠.

00:03:56.966 --> 00:04:00.966

그리고 매화 또 산수유, 구례.

00:04:00.991 --> 00:04:04.991

이런 식으로 꽃이라는
테마를 정해서, 봄에.

00:04:05.449 --> 00:04:10.741

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더우니까
시원한 계곡

00:04:10.940 --> 00:04:14.109

그다음에 바다, 해수욕장.

00:04:14.134 --> 00:04:17.359

아무래도 가고 싶은 곳은
다 공통적이잖아요.

00:04:17.384 --> 00:04:19.829

그다음에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

00:04:19.952 --> 00:04:25.129

그다음에 꽃감이 많이 나는 상주,
포도가 많이 나는 충북 영동

00:04:25.782 --> 00:04:29.404

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는
또 눈을 많이 보잖아요.

00:04:29.429 --> 00:04:35.944

눈꽃이 많이 핀 태백 눈꽃축제
또 태백산, 겨울의 설산.

00:04:35.969 --> 00:04:42.754

이런 식으로 시즌에 맞게 어울리는
여행지를 선정해서 가야겠죠.

00:04:43.703 --> 00:04:46.668

그다음에 나는 축제만
전문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

00:04:46.693 --> 00:04:49.281

딸기 축제, 양평, 논산.

00:04:49.306 --> 00:04:50.606

또 사과 축제.

00:04:50.631 --> 00:04:51.975

여러 군데서 열리더라고요.

00:04:52.000 --> 00:04:59.416

또 밤 축제 또 오일장, 특별한 행사
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
00:04:59.728 --> 00:05:03.589

여러분이 취재를 목적으로 가는 거면

00:05:03.951 --> 00:05:08.580

처음부터 분명하게 일정을 짜고
어떤 거를 취재하고

00:05:08.605 --> 00:05:13.109

누구를 만나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
자세히 알아볼 것인가

00:05:13.583 --> 00:05:17.768

그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
여행지로 가기 바랍니다.

00:05:17.963 --> 00:05:22.121

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숙박지는
성수기가 아니라면

00:05:22.146 --> 00:05:26.940

현지에서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
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00:05:27.140 --> 00:05:30.429
저도 여행을 갔을 때
정말 우연치 않게

00:05:32.925 --> 00:05:36.925
찜질방이랑 황토방을
같이 하는 곳을 알게 돼서

00:05:37.306 --> 00:05:40.911
그것도 지자체 담당자가
소개를 해 줬습니다, 현지에서.

00:05:41.169 --> 00:05:45.775
그러면 찜질도 하고
또 그 황토방에서 자는

00:05:46.006 --> 00:05:48.128
정말 특별한 경험도 하고

00:05:48.153 --> 00:05:55.784
이렇게 현지에서 알아보면 더 의외의
그런 취재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00:05:56.261 --> 00:06:00.546
그리고 우리가 미리 만약에
숙소를 정하게 되면

00:06:00.968 --> 00:06:06.794
우연치 않은 그런 즐거움을
놓치게 되고

00:06:06.969 --> 00:06:11.403
또 실제로 갔는데 많이 다른
경우가 있습니다, 숙박지는.

00:06:11.569 --> 00:06:13.374
음식점도 마찬가지로.

00:06:13.886 --> 00:06:17.033
그러니까 그 두 곳은 현지에 가서

00:06:17.058 --> 00:06:20.778
현지인에게 물어봐서
알아보는 게 가장 좋고요.

00:06:21.000 --> 00:06:25.000
그리고 식당도 요즘 맛집이라고
굉장히 많이 알려진 곳보다는

00:06:25.280 --> 00:06:26.517
현지인이 추천하는 곳.

00:06:26.542 --> 00:06:32.009
허름하더라도 현지인만 아는 그곳이
진짜 맛집인 경우가 많습니다.

00:06:32.275 --> 00:06:37.079
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

철저하게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00:06:37.746 --> 00:06:42.075

그러면 여행 준비를 마쳤으면
내가 1박 2일로 갈 것인가,

00:06:42.100 --> 00:06:44.846

2박 3일로 갈 것인가
아니면 당일치기로 갈 것인가?

00:06:44.871 --> 00:06:46.754

거리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죠.

00:06:47.216 --> 00:06:52.543

그러면 1박 2일 이상이다 그러면
숙소, 이런 거 현지에서 다 따져보고

00:06:52.568 --> 00:06:57.493

또 음식점도 인터넷에서
흔하게 나오는 음식점보다는

00:06:57.637 --> 00:07:02.393

현지에 가서 허름하더라도
그곳 주민들이 아는,

00:07:02.418 --> 00:07:05.428

주민들만 아는 이런 집이
알짜배기 집이 많습니다.

00:07:05.453 --> 00:07:09.674

이런 바탕이 된
그런 여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.

00:07:10.334 --> 00:07:14.782

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행기에서
주의해야 할 게

00:07:15.223 --> 00:07:20.520

이 모든 글은 평범한 시민들,
서민들이 봅니다.

00:07:21.766 --> 00:07:25.812

내가 어느 곳에서 협조를 했다고
막 으리으리한 특급 호텔

00:07:25.837 --> 00:07:30.763

이런 데 소개하면 읽는 독자들이
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고

00:07:31.736 --> 00:07:36.933

그 여행 기사는 많이
신뢰를 잃게 되죠.

00:07:36.958 --> 00:07:39.813

그러니까 평범한, 식당도 평범한.

00:07:39.838 --> 00:07:45.657

예를 들어서 지역은 굉장히 시골인데
분위기가 호텔급으로

00:07:45.682 --> 00:07:48.374

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데는
너무 어울리지 않죠.

00:07:48.794 --> 00:07:51.313
그 지역만의 음식 맛이 있잖아요.

00:07:51.437 --> 00:07:53.637
그런 데를 발굴해서 소개하고

00:07:54.268 --> 00:07:57.715
그곳만의 매력과 특징을
보여줄 수 있게

00:07:58.291 --> 00:08:00.479
그런 걸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.

00:08:00.602 --> 00:08:02.093
그리고 또 하나.

00:08:03.420 --> 00:08:08.196
여행지에서는 본인이
너무 튀면 안 됩니다.

00:08:09.490 --> 00:08:13.649
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
구두를 신고 가거나

00:08:13.788 --> 00:08:17.975
취재 간다고 한껏 멋부리면
현지인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.

00:08:18.158 --> 00:08:20.289
그러면 취재 협조가 안 되는
경우가 많아요.

00:08:20.314 --> 00:08:24.788
그냥 툄툄하게 여행자 복장으로
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

00:08:25.793 --> 00:08:30.035
그곳 주민들과 같이 화합을
하기 위해서는

00:08:30.232 --> 00:08:33.040
툄툄한 모습을 보여주고
소박해야 합니다.

00:08:33.264 --> 00:08:36.518
그래야 현지 주민들이.

00:08:36.811 --> 00:08:39.906
나 여행 작가다, 이렇게 티를 내면서
다니는 게 아니라

00:08:40.119 --> 00:08:44.579
정말 여행자의 마음으로 다니고
식당도 내 돈을 내고

00:08:45.154 --> 00:08:47.037
그리고 사진을 찍고

00:08:47.372 --> 00:08:55.394

식당도 취재를 한다고 미리
취재 협조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

00:08:55.680 --> 00:09:01.205

본인이 실제로 여행자의 마음으로
같이 음식을 먹어보고

00:09:01.230 --> 00:09:04.308

정말 맛있고 괜찮으면
그때 소개하는 겁니다.

00:09:04.619 --> 00:09:11.479

그런데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
서비스도 안 좋고 불친절하고

00:09:11.504 --> 00:09:15.082

음식도 별로고 그러면
실패한 게 아니라

00:09:15.107 --> 00:09:17.453

그것도 하나의 배우는 과정입니다.

00:09:17.663 --> 00:09:20.399

그러면 당연히 독자에게
소개하지는 않겠죠.

00:09:21.049 --> 00:09:27.065

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여행지든
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면

00:09:27.168 --> 00:09:29.654

1박 2일 여유 있게 다니면
좋을 것 같습니다.

00:09:29.679 --> 00:09:33.595

그러면 아무래도 음식점에서
실패한 거를

00:09:33.620 --> 00:09:35.643

다음 날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.

00:09:35.910 --> 00:09:39.265

그러니까 독자들에게
정말 현지에 간 것처럼

00:09:39.290 --> 00:09:44.960

이렇게 여행을 전해 주기 위해서는
본인이 먼저 철저하게

00:09:45.087 --> 00:09:50.375

그곳의 주민처럼 소박하고
정갈한 마음으로

00:09:50.578 --> 00:09:55.585

그렇게 여행을 다니면 그 여행 기사도
잘 써지게 될 것입니다.

00:10:03.496 --> 00:10:07.877

여행 작가가 여행을 가는 것은
취재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.

00:10:07.902 --> 00:10:11.896

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
계획을 짜고

00:10:12.307 --> 00:10:14.597

여행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00:10:15.616 --> 00:10:21.277

취재가 목적인 여행은
목적이 취재이기 때문에

00:10:21.302 --> 00:10:23.825

이 여행도 일의 연장선입니다.

00:10:23.850 --> 00:10:27.850

하지만 현장에서는 평범한 여행자의
마음으로 즐기는 것입니다.

00:10:27.993 --> 00:10:31.019

내가 여행 작가라고
빠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

00:10:31.370 --> 00:10:37.305

한 명의 여행자로서 차분하게,
소박하게 관찰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.

00:10:38.132 --> 00:10:43.375

그러면 먼저 여행지,
어디를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.

00:10:43.841 --> 00:10:49.555

그리고 그 현지에 가서 무엇을 보고
관찰하고 취재할 것인가?

00:10:49.864 --> 00:10:51.986

나는 그 지역을 소개하고 싶다.

00:10:52.011 --> 00:10:54.290

예를 들어서 통영을 간다.

00:10:54.537 --> 00:10:56.003

봄날의 통영.

00:10:56.028 --> 00:10:57.829

그러면 여러분, 어떻겠습니까?

00:10:59.190 --> 00:11:03.190

꽃도 보고 굉장히 갈 곳이 많겠쥬,
통영이.

00:11:03.215 --> 00:11:05.639

그러면 여러분이 관광.

00:11:06.046 --> 00:11:11.158

그러면 여행객들이 왔을 때
이 통영에서 무엇을 보고 즐기고

00:11:11.183 --> 00:11:13.257

또 먹고 머무를 것인지.

00:11:13.282 --> 00:11:17.954
그러면 똑같은 관광객의 마음으로
그것을 미리 취재를 하고

00:11:17.979 --> 00:11:19.447
소개를 하는 겁니다.

00:11:19.954 --> 00:11:22.541
그래서 일단 여행지 선택이
중요한데요.

00:11:22.566 --> 00:11:26.513
계절, 시즌에 맞는 것,
그다음에 축제, 이슈,

00:11:27.783 --> 00:11:33.451
그다음에 맛집, 특산물
이런 거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

00:11:33.476 --> 00:11:36.796
그 지역의 테마를 정하는 것이
중요하고요.

00:11:36.821 --> 00:11:40.821
그다음에 그 지역만의 특징을
보여줄 수 있는 아이টে

00:11:40.846 --> 00:11:43.257
메인 테마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.

00:11:43.974 --> 00:11:46.430
벚꽃이 많이 피는 진해, 이런 식으로.

00:11:46.455 --> 00:11:51.547
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
솔직히 봄날에 진해를 가는 것은

00:11:51.572 --> 00:11:53.533
벚꽃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.

00:11:53.880 --> 00:11:57.630
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
공감할 수 있는 여행지를

00:11:57.655 --> 00:11:59.453
선정해서 가는 것이 좋고

00:11:59.478 --> 00:12:04.518
또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
코너도 있지만 하나의 특정,

00:12:04.543 --> 00:12:08.089
벚꽃 축제만 소개하는 거,
이런 식으로.

00:12:08.114 --> 00:12:12.367
그다음에 딸기 축제,
사과 축제, 꽃감 마을.

00:12:13.006 --> 00:12:15.868
특수한 마을이 있죠,

그런 데만 소개하는 것.

00:12:15.893 --> 00:12:18.844

테마별로 여러분이 정해서
하면 좋습니다.

00:12:19.383 --> 00:12:22.881

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
여행 준비부터 현지 여행까지

00:12:22.906 --> 00:12:25.778

취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
철저히 준비하고

00:12:25.980 --> 00:12:29.620

또 여행자의 마음으로 소박하고

00:12:29.793 --> 00:12:36.007

또 현지 주민들과도
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면

00:12:36.197 --> 00:12:39.706

여행도 잘 써지리라고 생각됩니다.

00:12:40.716 --> 00:12:42.638

감사합니다.